'퀸' 김단비, WKBL 정규리그 MVP

〈우리은행〉

하나은행 2024~2025 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서 기자단 투표 116표 만장일치로 차지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퀸' 김단비가 올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김단비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116표 만장일치로 MVP를 차지했다.

김단비는 통계 부문에서 △득점상(21.1점) △리바운드상(10.9개) △블록상(1.52개) △스틸상(2.07개), 투표 부문에서 △맑은기술 윤덕주상(최고 공헌도) △우수수비선수상 △베스트5(포워드)에 이어 MVP까지 이날 8관왕에 올랐다.

8관왕은 2023~2024시즌 박지수와 함께 여자프로농구 역대 최다 개인상 수상 기록이다.

또한 김단비는 역대 6번째 만장일치 정규리그 MVP라는 대기록까지 완성했다.

김단비는 "(개막 전) 우리은행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다. 처음 홈 개막전을 치르는데, 아산체육관을 가득 채워준 우리은행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이어 "정말 힘들었는데, 팬들 덕분에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말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다. 'MVP다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농구를) 그만할지 고민도 했다. 나는 딱 2년 정도였는데, 그걸 10년 넘게 하신 위성우 감독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를 수상한 우리은행 김단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내 목표는 감독님의 최고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김단비는 "끝까지 노력하겠다. 내려갈 일만 남았겠지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올라가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수상 소감을 마쳤다.

한편, 신인상은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인천 신한은행에 입단한 홍유순이 차지했다.

지도상은 우리은행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위 감독이 거머쥐었다.

아시아쿼터상은 청주 KB국민은행의 나가타 모에에게 돌아갔다. /뉴시스

2025년도 차범근 축구교실이 다음달 27일 무주군 일원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4년도 차범근 축구교실.

축구로 꿈을 키워가요

2025 차범근 축구교실 내달 27일 시작
무주 지역 내 초등학생 100여명 대상
참가자 모집은 1~3학년 6일, 4~6학년 7일

2025년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지역 내 초등학생(1~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축구 기본기와 스포츠 정신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균형 발달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팀차붐(이사장 차범근)이 주최하고 풋워크리에이션(대표 차세찌)이 주관하며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넥슨, AIA, 아디다스, 코카콜라, 대웅제약, 투탑정형외과가 후원한다. 무주군은 홍보와 장소, 의료인력 등을 지원한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3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6일(매주 목요일)까지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1~3학년 오후 3시30분~4시 20분, 4~6학년 오후 4시 30분~5시 20분)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을 검색한 후, 채팅방에 학생의 학교명과 학년, 이름, 그리고 보호자 성명, 연락처 기입 후 전송하면 된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선착순 49명)은 오는 3월 6일, 51명 모집을 하는 4~6학년 학생은 3월 7일 오후 1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단, 개별 통학이 가능해야 하며(셔틀버스 미운영) 해당 학년 접수일시 이전에 신청한 건은 모두 무료 처리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장애인체육회 정기 이사회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가 지난 20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장애인체육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인의 참여 확대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스포츠마케팅 활력소…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세운다

전북자치도 주관 '2025년도 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김제시 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의 숙박과 체력단련이 가능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전지훈련센터를 올해부터 추진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지훈련센터는 총사업비 50억원(도비 18.6억원, 시비 31.4억원)으로 연면적 1,200㎡, 지상 3층으로 50~60명 수용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전지훈련센터가 완공되면 열악한 숙박시설을 보완해 주며 많은 전지훈련팀이 방문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숙소와 체육시설 등이 집적화돼 스포츠 관광도시 전지훈련 최적지 김제를 만드는데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전지훈련센터는 전지훈련팀에게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지훈련센터와 주변 체육시설을 연계해 김제시가 전지훈련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춘 스포츠도시 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소도시 완주' 바둑팀, 챔피언스컵 정상 '우뚝'

2025년 대방건설배 대회서

바둑의 전설 이창호 9단이 이끄는 수소완주팀이 2025년 대방건설배 챔피언스컵 정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수소도시 완주팀(감독 정수현)은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보령머드팀(감독 김미리)과 펼쳐진 챔피언스컵 1국 이창호9단 VS 김민서2단 대국에서 이창호9단 백승, 권효진8단 VS 이슬주3단 대국에서 권효진8단 흑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수소도시 완주팀은 팀 창단 첫해 바둑레전드리그 우승에 이어 2연승을 기록하며 바둑명가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명성을 드높여 준 선수, 감독,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스포츠메카 완주 구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